

## 또래 괴롭힘 피해아의 특성에 기초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The Development of Intervention Programs  
Based on Characteristics of Children Victimized by Peers:  
Focus on Parent Education and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s

도 현 심\*\*

Doh, Hyun-Sim

권 정 임\*\*\*

Kwon, Jung Im

박 보 경\*\*\*\*

Park, Bo Kyung

홍 성 훈\*\*\*\*

Hong, Seong Heun

홍 주 영\*\*\*\*

Hong, Ju Young

황 영 은\*\*\*\*

Hwang, Young Eun

### Abstract

Based on characteristics of victims, the parent education program focused on building a new concept of personal respect toward their children and on changing overprotective and coercive parenting styles into democratic parenting. The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focused on building self-acceptanc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capabilities in victimized children. Three groups, each composed of 6 victims and their mothers, were compared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s. Children in experimental group I showed marked increase in self-esteem. They also reported that their mothers' overprotective parenting decreased after

※ 접수 2003년 6월 30일, 채택 2003년 7월 21일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1-041-D00315).

\*\*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부교수, E-mail : goodparents@hanmail.net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박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

participation in the parent education program, indic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vention program.

**Key Words** : 또래괴롭힘(peer victimization), 부모교육 프로그램(parent education program),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과보호적 양육행동(overprotective parenting behaviors)

## I. 서론

또래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문제 행동은 적응력 있는 개체로서의 발달에 미치는 지대한 부정적 영향력으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온 주제이다. 특히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 아동(이하, 피해아)은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현재 및 미래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해 아동(이하, 가해아)의 경우에도 그들의 공격적 성향은 훗날의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Magnusson, Stattin, & Duner, 1983; Olweus, 1993). 또한 이러한 상황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방관적 자세의 아동들 역시 또래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 상황을 관찰하게 되므로, 그들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피해아와 가해아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또래 괴롭힘(peer victimization)은 그 해결책을 시급히 모색해야 하는 문제이다.

또래를 괴롭히거나 혹은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현상은 동시적으로 발생하므로, '또래 괴롭힘'이라는 용어는 문맥에 따라 피해아의 입장이나 가해아의 입장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이 현상을 피해아와 가해아 중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각각 또래 괴롭힘과 또래 공격성

(peer aggression)으로 명명해왔다. 따라서, 또래 괴롭힘은 주로 아동이 빈번하게 또래 공격의 표적이 되는 것으로 정의되고(Perry, Kusel, & Perry, 1988), 강한 아동이 상대적으로 약한 또래를 괴롭히는 행동의 결과로 초래된다(Olweus, 1991).

일명 '집단 따돌림' 혹은 '왕따' 현상으로도 불리는 또래 괴롭힘은 전 세계에 걸쳐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발생되어온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말 북유럽을 중심으로 수행되기 시작한 연구(Olweus, 1978)를 제외하고는 국내외적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를 주제로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또래 괴롭힘의 문제는 1990년대 중반을 즈음하여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가해아를 신고, 처벌하는 기관을 세우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 많은 사회적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여전히 특별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9).

또래 괴롭힘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 피해아의 특성에 초점을 두어, 피해아가 일반 아동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 관심을 두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아의 관련변인으로 알려진 변인들은 단연 부모-자녀관계(도현심, 2000; Finnegan, Hodges, & Perry, 1996; Olweus, 1978), 또래관계(Bukowski, Newcomb, & Hartup,

1996), 그리고 피해아 자신의 인성 특성(Alsaker, 1993; Boulton & Underwood, 1992; Kochenderfer & Ladd, 1996; Olweus, 1992, 1993) 등이다. 또한, 또래 괴롭힘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어오는 가운데, 연구자들은 그러한 연구들을 확장하여 피해아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그 대표적 시도가 바로 피해아를 돕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고 그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발견하기가 거의 어렵다. 게다가 중재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보고된 연구는 피해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피해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종의 캠페인과 같은 차원에서의 접근을 시도하는 정도이다(Olweus, 1991).

한편, 아동기나 청소년 초기는 또래 괴롭힘이 특히 빈번하게 보고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근거하에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 시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어져 왔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최근에 이루어진 면접 조사(최미경, 도현심, 2001)에서도 피해아들은 2~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온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또래 괴롭힘이라는 문제 자체는

중학생들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조선일보, 1999년 1월 5일자 25면)될지라도, 이러한 문제는 이미 아동기에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아동기 가운데서도 초등학교 5학년 시기는 이제 곧 다가올 청소년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현저한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이 하루의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보건대,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아들을 돕기 위한 중재적 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또래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력에 근거할 때, 피해아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은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피해아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도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피해아의 특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 괴롭힘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주제로 한 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기초로, 피해아의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피해아를 위한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인 만 11세의 피해아와 그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또래괴롭힘 피해아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설계

앞서 언급하였듯이, 피해아의 특성과 관련된 대표적 변인들로 보고되는 것은 부모-자녀관계 및 또래관계를 비롯하여 피해아의 인성적 특성 등이다. 이러한 변인들 가운데 피해아의 인성적 특성을 제외한 부모-자녀관계와 또래관계는 피해아를 둘러싼 환경적 특성, 즉 외부의 중재를

통해 어느 정도 변화가 가능한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피해아 자신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 1. 부모교육 프로그램

### 1) 이론적 고찰

급속한 사회변화와 더불어 빈번히 발생하는 행동문제가 보고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모들에게 올바른 자녀양육방법을 가르쳐야한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보급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는 하나, 실생활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반면에 국외의 경우,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보다 일찍이 절감하고 부모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국가 차원과 전문가 집단 차원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즉, 1960년대 주정부차원에서 빈곤층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Head Start, Home Start, Followthrough 등의 프로그램이 보고되는가 하면(이재연, 김경희, 1989), Rudolf Dreikurs, Heim Ginott, Thomas Gordon 등의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Hamner & Turner, 1985).

국내에서는, 국외의 잘 알려진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여 보급하거나 혹은 각 전문가 집단에 의해 자체 개발되는 식의 크게 두 가지 양상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전자의 경우는, Dreikurs의 이론에 기초하여 완성된 STEP(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과 Gordon이 개발한 PET(Parent Effective Training), Popkin의 APT(Active Parenting Training) 등이 해당한다. 후자의 예를 들면, 1980년대에 들어 부모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가 처음으로 시도되었고(홍기형, 박혜정, 권경안, 권기욱, 1986), 만 3세 이하의 유아와 어

머니를 대상으로 한 가정방문 프로그램(정문자, 1983)을 비롯하여,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는 지방산골마을, 서울 빈민지역, 섬마을 등에 거주하는 유아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유안진, 김연진, 1993). 또한 1990년대에 들어 도현심과 유명희(1996)는 기존의 국내외 프로그램들을 기초로 민주적 부모-자녀관계 정립을 목표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고찰해 보면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 및 표현상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부모들에게 자녀를 민주적으로 양육하는 방식을 알려주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사하다.

### 2) 피해아 부모의 양육행동 특성

기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고찰을 기초로, 본 연구는 일반아가 아닌 피해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아를 둔 부모의 특성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 연구들은 또래괴롭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양육행동 특성으로 '부모의 통제'를 손꼽는 경향이 있다(Perry, Hodges, & Egan, 2001). 부모의 통제는 아동이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분리와 독립을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개체화 과정을 방해하고, 나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위협하기도 하는 부적절한 양육행동이다. 부모가 지배적이고 간섭을 많이 할 때, 아동은 위축되거나 수줍은 행동을 보이기가 쉽다. 아동의 이러한 행동은 예의바르며 순종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아동의 수줍음은 또한 또래괴롭힘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그 부적응적 측면 또한 간과할 수 없다(도현심, 199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크게 두 가지 특성을 포함한다. 하나는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간섭하고 과보호하는 행동이다. 기존 연구에서 피해아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나이보다 어리게 다루어 아기취급을 하고 여가시간활동을 지나치게 통제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Olweus, 1978). 또 다른 특성으로는 부모의 강압적 양육행동이 포함된다. 강압적 양육행동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언어적 폭력을 사용하거나 아동을 비난하고 권력우세적인 훈육을 하는 것으로서, 아동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사랑이나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특히 처벌적 양육행동은 아동을 거칠고 공격적으로 만들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강한 사람에게는 복종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으며(Patterson & Bank, 1989), 이러한 양육을 받은 아동은 부모로부터 학습한 공격행동을 적용하거나, 부모에게 했던 대로 복종적이고 의존적 행동양식을 보이기도 한다(구본용, 1998). 실제로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또래내의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김윤경, 1997), 아버지의 처벌적, 권위적 태도는 무시집단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민주적 태도는 인기집단과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즉, 아버지의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양육행동이 자녀로 하여금 또래간의 거부를 경험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또래괴롭힘간의 밀접한 관계는 국내연구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피해아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에서, 피해아의 부모는 처벌적, 과잉보호적 양육을 했으며, 자녀의 일상생활에 무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최미경, 도현심, 2001). 대부분의 피해아들은 또한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체벌을 받으며 자랐고 현재도 체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피해아들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잘못된 양육

을 경험하기가 쉬우며, 따라서 이러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

### 1) 이론적 고찰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으로는 주로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공격적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아동들, 즉 가해아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개발된 것이며(김소연, 1999; Schneider, Rubin, & Ledingham, 1985), 또래 괴롭힘의 피해아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을 발견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0년대 이래로 또래 괴롭힘에 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Olweus(1991)의 중재 프로그램은 피해아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개발된 대표적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노르웨이에서 또래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시점에 전국적인 규모로 시행된 Olweus의 프로그램은 아동은 물론 교사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계획되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주로 책자와 비디오 테이프를 이용하여 전달되었으며, 상당 부분이 가해아와 피해아의 행동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한 계몽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일종의 캠페인과 같은 성격을 띄고 있다.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500여명의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1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또래 괴롭힘 문제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즉, 캠페인을 시작한 후 8개월과 20개월에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또래 괴롭힘의 문제는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Olweus의

프로그램은 대규모로 계획된 연구로서, 또래 괴롭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접근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지만, 적어도 또래 괴롭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 교사 그리고 아동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내의 경우, 최근 들어 피해아를 위한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은 청소년관련기관과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일례로 서울특별시 청소년종합상담실(1998)에서 보고한 ‘따돌림을 당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평가의 단계를 거치지 못한 단점이 있으나, 당시 왕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던 상황에서 이러한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연구자는 도입, 자기인식, 문제 해결 과정 익히기, 마무리 단계로 구성된 총 10회기의 프로그램을 매주 3회씩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단기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기존 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된다. Olewus와 유사하게, 피해아와 일반아 모두를 포함하여 수호천사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한 국내 연구에서는 피해아의 사회적 지수에 유의적 차이를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였다(박경현, 1999). 또한,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술훈련 프로그램이 고립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유재환(2000)에 의하면, 사회적 기술훈련은 고립학생들의 학교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이 위축아동의 위축행동 및 또래수용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자기주장훈련 프

그램은 위축아동의 위축행동 감소와 또래수용도 향상에 효과적이었다(권명희, 2000).

## 2) 피해아의 또래관계 및 인성 특성

또래 괴롭힘과 관련된 주요 변인으로서 부모-자녀관계와 더불어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진 주제로는 역시 또래관계를 들 수 있는데, 피해아들은 또래관계에서 낮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며, 동시에 보다 심각한 수준의 또래 거부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또래 거부를 경험하는 아동은 주변의 많은 또래들로부터 부정적으로 인식되기 쉽고, 나아가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이나 공격을 당하는 하나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또래집단에서의 수용성이 낮은 아동들, 즉 또래들에게 거부를 당하거나 친구가 없는 경우 학령기 동안 또래들로부터 만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였다(Hodges Malone, & Perry, 1997; Perry et al., 1988). 괴롭힘을 경험한 아동들은 또래집단에서 가치 있는 역할을 차지하기에 유리한 우정적, 협동적, 친사회적 행동과 유머감각과 같은 사회적 유능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피해아들은 가해아들에게 복종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가해아들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보다 많이 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이와 같은 특성에 근거해 볼 때, 피해아들은 내면화 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며, 이와 같은 내면적 행동 특성은 가해아의 괴롭힘을 강화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Hodges & Perry, 1999). 즉, 피해아는 또래가 괴롭힐 때 근심, 행동적 복종, 위축 등과 같은 행동을 나타내어, 자신을 방어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받게 되며, 이러한 행동은 괴롭힘의 대상으로 만만히 보이게 한다(Perry, Williard, & Perry, 1990; Schwartz, Dodge, Pettit, & Bates, 1997).

한편, 피해아들은 부정적 학교생활을 한다는 연구결과(Kochenderfer & Ladd, 1996)를 통해, 이러한 아동들은 다른 아동들과 구별되는 인성 특성을 보이리라고 가정된다. 여러 연구결과들을 보면, 피해아들은 보다 더 불안해하고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Olweus, 1993), 보다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Alsaker, 1993; Olweus, 1993), 우울해지기가 쉬우며(Olweus, 1992), 외로움을 보다 많이 경험하기도 하였다(Boulton & Underwood, 1992; Kochenderfer & Ladd, 1996b; Olweus, 1993).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대부분의 아동들은 자기확신과 자아존중감이 부족하여 공격에 대해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것처럼 행

동하였다(도현심, 최미경, 1998; Hodges et al., 1997; Perry et al., 1990). 특히 청소년기 초기에 괴롭힘을 당한 아동은 10년 후에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Olweus, 1992). 또한 가을과 봄 학기에 두 차례 자료를 수집 분석한 Egan과 Perry(1998)의 단기 종단적 연구에서도 피해아의 자아존중감, 특히 자신이 지각한 사회적 유능감이 가을 학기보다 봄 학기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해아들은 또래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주장할 수 있는 능력과 자기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느낄 수 있는 훈련을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 Ⅲ. 또래괴롭힘 피해아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본 연구의 중재 프로그램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피해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1.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그 동안 수 차례의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자녀양육행동의 긍정적 변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부모교육 프로그램(도현심, 유명희, 1996)을 기초로, 피해아의 자립심 증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개발하였다. 기본적으로, 도현심과 유명희(1996)의 프로그램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하게 하고, 자녀와의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에 더하여, 본 프로그램에서는 일종의 부적응적 행동에 속하는 피해

아의 문제 행동에 더욱 초점을 둘 뿐만 아니라 아동의 사회적 능력 향상을 돕는 자녀양육행동과 관련되는 내용을 보강하였다. 이를 위해, Glenn과 Nelsen(1989)의 Developing Capable Young People Program을 기초로 하여, 아동의 개인적 유능감, 환경에 대한 통제력, 대인관계 기술 등을 고양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 1) 목적 및 목표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피해아의 어머니들에게 올바른 자녀양육방법을 가르침으로써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관계에 변화를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피해아가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괴롭힘을 감소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프로그램은 부모의 인식 변화와 행동 변화의 두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즉, 부모가 자녀를 인격체로서 존중할 수 있는 개념의 정립과 민주적

〈표 1〉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회기별 교육 목표 및 내용

회기	교육 목표	교육 내용
1	올바른 아동관의 정립	현대사회에 적절한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올바른 아동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서의 아동에 대한 이해를 명백히 한다.
2	민주적 양육행동의 기본 개념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는 상호존중적 부모-자녀관계의 기본 개념으로서, 부모-자녀간 상호존중적 관계유지, 모델로서의 부모, 격려의 사용, 타인에 대한 배려, 애정의 표시 등을 강조한다.
3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이해	바람직하든 그렇지 않든, 아동의 행동에는 그 이유가 있다. 특히 잘못된 행동의 경우, 부모는 아동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부모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문제해결방법은 무엇인가를 알아본다.
4	아동의 자신감 기르기	아동기의 발달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아동이 자신감을 기를 수 있는 방법, 즉 탐색하기, 격려하기, 인정해 주기, 존중해주기 등에 대해 소개한다.
5	아동의 자기통제감 기르기	아동이 자신의 생각, 선택, 행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는 것은 중요하다. 최소한의 기본적 제한 내에서 아동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부모의 모델링을 강조한다.
6	아동의 대인관계기술 기르기	아동이 주변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경청하기, 의견나누기, 협조하기, 협상하기, 분담하기, 감정이입하기 등의 기술을 소개한다.
7	민주적 양육행동의 다양한 기법	감정완화하기, 질적인 시간 갖기, 비언어적 신호 사용하기, 선택권 주기 등의 다양한 양육행동기법들을 소개한다.
8	대화를 통한 부모-자녀간 문제해결 I	부모가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자녀의 입장에서 서보기,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음을 전하기, 부모의 감정과 생각을 들려주기, 자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등의 네 가지 단계를 소개한다.
9	대화를 통한 부모-자녀간 문제해결 II	부모-자녀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상황을 제시하고 부모 스스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본 프로그램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생활에 일반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10	부모-자녀간 애정적 관계 유지	지난 회기들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부모-자녀관계에서 민주적 양육행동과 기법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애정적 관계의 유지임을 인식시킨다.

양육행동으로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 측면에서는 피해아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행동 특성으로 잘 알려진 통제적 양육의 부정적 영향을 인식시키고, 민주적 양육방법 가운데 특히 자녀를 자립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실제적 방법들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를 목표로 한 각 회기별 하위 목표는 <표 1>과 같다.

## 2) 구성 및 내용

본 프로그램은 총 10회기로 된 단계적 프로그램으로서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제 1회기와 2회기를 포함하는 전반부는 부모의 의식변화를 시도하고, 중반부는 프로그램의 전개 단계로서 다양한 양육상황에서의 실제적인 문제해결력을 키워나가며 3~9회기의 7회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제 10회기에 해당하는 후반부



는 지난 9회기 동안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보고 민주적 부모로서의 자세를 확인해보는 마무리 단계이다. 각 회기별 내용은 <표 1>과 같다.

### 3) 프로그램 집단의 운영

#### (1) 참가대상 및 집단 규모와 강사

본 프로그램의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인 피해아의 부모들이며, 6~8명으로 구성되는 소규모 집단이다. 강사는 아동학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비롯하여 실제적인 자녀양육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 (2) 실시기간

본 프로그램은 매주 1회씩 총 10주로 한다. 각 회기는 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 (3) 회기의 진행 순서 및 내용

본 프로그램은 매 회기마다 크게 전반부(50분)와 후반부(60분)로 구분된다.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는 10분간의 휴식시간이 포함된다. 전반부는 도입 단계(10분)와 교재 토론 단계(40분)로, 후반부는 실습 단계(20분), 문제해결단계(30분), 그리고 마무리 단계(10분)로 구성된다. 각 회기의 진행방식은 강의를 비롯하여 집단 토의, 워크북과 역할극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다.

## 2.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은 Rubin과 Asendorf(1992)와 Pepler, King과 Byrd(1991)를 기초로 하여 피해아의 자기표현 혹은 자기주장 능력과 자아존중감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Pepler와 동료들(1991)의 프로그램은

원래 6~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기 통제력과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 1) 목적 및 목표

본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은 피해아에게 올바른 대인관계 기술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변화를 경험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생활에서의 적응력을 갖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앞서 제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프로그램은 아동의 인식 변화와 행동 변화의 두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즉, 아동이 자신의 또래관계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습득된 사회적 기술 훈련을 통해 보다 원만한 또래관계로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각 회기별 하위 목표는 <표 2>와 같다.

### 2) 구성 및 내용

본 프로그램은 총 10회기로 된 단계적 프로그램으로서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제 1회기, 2회기, 3회기를 포함하는 전반부는 아동의 자아 인식을 돕고, 제 4-9회기에 속하는 중반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과 사회적 기술 훈련을 실시하며, 제 10회기에 해당하는 후반부에는 원만한 대인관계의 유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각 회기별 내용은 <표 2>와 같다.

### 3) 프로그램 집단의 운영

#### (1) 참가대상 및 집단 규모와 강사

본 프로그램의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인 피해아들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 대상은 6-8명으로 구성된 동성의 아동들로서 소규모 집단으로 운영된다. 강사는 아동학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아동 대상 프로그램을

〈표 2〉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회기별 교육 목표 및 내용

회기	교육 목표	교육 내용
1	도입 : 내 짝궁 알기	프로그램의 첫 회기임을 고려하여 집단내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짝궁을 집단원들에게 소개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동시에 점토 만들기 활동을 통해 긴장을 완화시키고 자신을 개방하는 경험을 하도록 한다.
2	자아인식 : 나 바라보기	종이상자 꾸미기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표현해보는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해 통찰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함으로써 자신을 개방하는 연습을 하고 집단구성원간의 친밀감을 돈독히 한다.
3	자아인식 : 나의 친구관계 알아보기	자신의 친구관계의 유형과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친구관계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의 친구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살펴보도록 한다.
4	자아수용력 기르기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장단점과 친구가 생각하는 자신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다.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새로운 자기상을 그려본다.
5	자아존중감 기르기	자신의 생각을 객관화시키는 신체 지도 그리기와 집단구성원들로부터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소중함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6	사회적 기술 훈련 : 의사소통하기 I	일방향적 의사소통과 양방향적 의사소통을 이해시키고, 경청하기를 비롯한 대화의 기본자세를 소개한다.
7	사회적 기술 훈련 : 의사소통하기 II	나 전달법을 소개하고,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관찰자로 구성된 역할극을 통해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을 연습하도록 한다.
8	사회적 기술 훈련 : 의사소통하기 III	주장적, 공격적, 소극적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역할극과 게임을 통해 자기주장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9	사회적 기술 훈련 : 미해결 과제 탐색 및 해결하기	과거에 친구와의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갈등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돕는다.
10	마무리하기	지난 9회기 동안의 프로그램 내용을 정리하고, 친구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는 글을 서로 나누어 보도록 한다. 또한, 새로운 친구관계 형성을 위한 자신의 다짐을 글로써 적고 발표해 본다.

운영해본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2) 실시기간

본 프로그램은 매주 1회씩 총 10주로 한다. 각 회기는 1시간 40분에 걸쳐 진행된다.

(3) 회기의 진행 순서 및 내용

본 프로그램은 매 회기마다 크게 전반부(45분)

와 후반부(45분)로 구분된다.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는 10분간의 휴식시간이 포함된다. 전반부는 도입 단계(10분)와 강의 및 실습 단계(35분)로, 후반부는 실습 단계(35분)와 마무리 단계(10분)로 구성된다. 각 회기의 진행방식은 강의와 더불어, 집단 토의, 역할극, 게임, 미술 활동 및 워크북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다.

## IV. 또래괴롭힘 피해아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실시 및 평가

피해아를 둔 어머니와 피해아를 대상으로 각 각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전, 사후, 및 추후 검사를 통해 그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18명의 피해아(남아 9명과 여아 9명)와 그들의 어머니들로서, 이들은 각각 12명과 6명으로 구성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실험 집단은 어머니와 아동 모두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하, 실험 집단 I)과 아동만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하, 실험 집단 II)으로 구성되었으며, 통제 집단은 질문지 조사에만 참여하였다(<표 3>). 아동의 출생순위는 외동아가 1명(5.6%), 첫째아가 10명(55.6%), 둘째아가 7명(38.9%)이었다.

연구 대상 가족의 평균 월수입은 2,390,000원으로서, 통계청에서 조사한 2002년도 소득 10분 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따르면 2분위인 약 2,580,000원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경제적 수준이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12명(66.7%), 대졸이상이 6명(33.3%)이었으며,

<표 3> 연구 대상 아동의 집단 구성 (단위: 명)

	실험 집단*		통제집단	계
	실험 집단 I	실험 집단 II		
남 아	3	3	3	9
여 아	3	3	3	9
계	6	6	6	18

\*실험집단 I은 어머니와 아동이, 실험집단 II는 아동만이 연구에 참여함.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10명(55.6%), 대졸이상이 8명(44.4%)이었다. 연구 대상 어머니들 가운데 취업모는 11명(61.1%)이었다.

### 2. 조사 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조사시기에 따라, 기초 조사용과 본조사용(사전, 사후, 및 추후 검사)으로 구분된다. 기초조사용 척도는 또래괴롭힘 척도로서 아동 자신과 또래에 의해 보고되었다. 본조사용 척도는 아동용과 어머니용으로 구분된다. 아동용은 또래괴롭힘 및 자아존중감 척도와 양육행동 척도로, 어머니용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즉, 아동의 성과 출생순위, 어머니의 취업 여부, 부모의 교육수준 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과 양육행동 척도로 구성된다.

#### 1) 기초조사용

또래 괴롭힘은 이를 직접 경험하는 피해아 자신에 의해 평가되는 자기보고가 또래보고나 교사보고에 비해 더 유용하다는 기존 연구결과들(도현심, 1999; Olweus, 1991)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연구 전반에 걸쳐 자기보고 척도를 또래 괴롭힘을 측정하는 주 척도로 사용하고자 한다. 단, 또래보고의 경우 동성의 또래 가운데 괴롭힘을 경험하는 급우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또래의 부정적 행동을 평가하는 상황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되기는 하지만, 또래에 의한 측정시 얻을 수도 있는 객관성의 잇점을 고려하여 기초 조사에서만은 또래보고도 사용하였다.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은 Perry와 동료들(1988)의 척도를 번안한 도현심(2000)의 문항들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Wiggins

와 Winder(1961)가 개발한 Peer Nomination Inventory(PNI)를 토대로 수정된 것으로서, 7개 문항으로 구성된 피해 행동 관련 문항들로 구성된다. 문항의 예로서는, '다른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당한다,' '다른 아이들로부터 비웃는 식의 별명을 자주 듣는다,' '다른 아이들에게서 맞거나 밀린다' 등이 포함된다. 이 척도는 Likert식 4점 척도로서, 기존의 국내 연구들(예 : 도현심, 2000, 최미경, 도현심, 2000)에서 Cronbach's  $\alpha$ 에 의한 신뢰도가 .85의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으며, 부모에 대한 애착, 또래관계 및 자아존중감 등과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통해 타당도가 확인된 바 있다.

또래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은 또래평가시 야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다소나마 줄이고자 하는 학교장의 제안으로 한 문항으로 된 또래지명법을 이용하였다. 즉, 동성의 급우들 가운데 '다른 아이들로부터 괴롭힘(예 : 맞기, 놀림이나 위협을 당하기)이나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의 이름을 세 명까지 적게 하였다. 또래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 점수는 지명된 숫자를 학급 별로 표준화시켜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본조사용

아동용 척도는 또래괴롭힘 및 자아존중감 척도와 양육행동 척도로 구성된다. 또래괴롭힘은 기초조사시 사용한 자기보고용 척도를, 자아존중감은 10문항으로 구성된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양육행동 척도는 과보호적 요인과 강압적 요인으로 구성되며, 과보호적 요인은 Doh와 Falbo(1999)의 척도 가운데 5문항을, 강압적 요인은 도현심과 최미경(1988)의 척도 가운데 5문항을 아동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예 : '나는...'을 '우리 어머니는...'으로 수정함). 어머니용 척도는 아동

용 양육행동 척도와 동일한 내용이다. 과보호적 요인의 문항의 예로는 '아이가 어려서 어떤 일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까이서 돌보아 준다,' '아이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도와준다,' '아이에게 위험해 보이는 놀이나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등이, 강압적 요인의 문항의 예로는 '아이가 말을 잘 안들을 때는 "엄마가 하라던 해"라는 식으로 명령을 해서라도 말을 듣게 한다,' '아이가 억울하다고 불평이나 항의를 하려 하면, 일단 말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를 부당하게 또는 지나치게 야단치는 경우가 있다.' 등이 포함된다.

## 3. 조사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단계에 걸쳐 조사되었다.

### 1) 1단계 조사 : 기초조사

제 1단계는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할 아동들을 선정하기 위한 기초조사 단계로서, 서울시 강북소재의 서로 인접한 2개 공립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들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만나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동의를 얻었다. 다음, 5명의 연구보조원들은 각 학교를 방문하여 학급별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별로 각각 305명(8개 학급)과 379명(9개 학급)의 총 684명에게 기초조사용 질문지를 배부한 후, 무응답이 많은 7부를 제외한 677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 2) 2단계 조사 : 실험 집단 및 통제 집단의 선정

기존의 연구들에서 보고하는 또래괴롭힘 피해아의 분포율(즉, 한 집단의 10%정도)에 근거하

여(Juvonen & Graham, 2001), 기초조사 대상 아동들 가운데 자기보고 및 또래보고에 의한 또래 괴롭힘 점수가 둘 다 상위 20%에 속하는 아동들(61명, 전체 아동의 9.01%)을 선정하였다. 이들 가운데 13명의 아동들이 우선적으로 제외되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부모 중 한 쪽(3명)이나 부모 모두(1명)와 별거중인 아동, 아버지가 사망한 아동(1명)을 포함하여, 담임교사가 교사차원에서 지도하겠다고 프로그램 참여를 거절한 경우(6명)와 장기결석 아동과 정신지체 아동이 각각 한 명씩 포함되었다. 결과적으로, 61명 가운데 48명 아동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연구참여 동의를 구하기 위한 통화를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실험 집단 I, 실험집단 II, 통제집단으로 각각 8명, 8명, 11명의 아동들이 포함되어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부모교육 프로그램 시작 전에 한 어머니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을 알려왔으며, 부모교육 프로그램 2회기 후에 부모-자녀간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한 어머니에게는 개인상담 및 치료를 권유하였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실험 집단 I에는 6쌍의 어머니와 아동(남아 3명)이 포함되었다. 실험 집단 I의 인원수를 기초로, 자료분석시에는 실험집단 II와 통제집단 가운데 아동의 성별을 고려하여 각각 6쌍을 임의로 선정함으로써, 최종 연구 참가자로 각 집단별로 어머니와 아동 각각 6명씩 총 36명이 포함되었다.

### 3) 3단계 조사 : 중재 프로그램의 실시

중재 프로그램은 1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집단과 2개의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 집단으로 구분되어 실시되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본 연구자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은 각각 6명씩으로 구성된 남아 집단과 여아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

로 두 명의 연구보조원들에 의해 실시되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은 각각 녹화와 녹음이 되었다.

## 4. 자료분석

기초 조사의 경우,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각 아동의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 괴롭힘 점수와 또래 보고에 의한 또래 괴롭힘 점수를 기초로 백분위수를 산출하였다.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는 전후 검사 통제집단 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에 따라 연구 대상들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받은 점수의 평균차가 각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함으로써 평가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살펴보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친 후 2개월에 실험 집단 I만을 대상으로 사후검사와 추후검사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실험집단 II와 통제집단의 경우는 어머니들의 비협조로 인해 일부 아동들로부터만 조사가 가능하며, 사후검사와 추후검사의 비교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양 검사간의 점수차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였다.

## 5. 연구결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첫 회기와 마지막 회기, 그리고 프로그램을 마친 다음 2개월 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된 척도를 이용하여 각각 사전, 사후 및 추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검사를 통해 측정된 또래 괴롭힘, 자아존중감 및 양육행동의 세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1) 아동 행동의 변화

각 집단별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 의해 측

정된 또래괴롭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실험집단 I의 경우 또래괴롭힘 평균점수가 사전검사시 2.57(SD=.68)에서 사후검사시 2.12(SD=.64)로 감소되었으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p=.06$ ).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경우, 실험집단 I에서만 사전검사시보다 사후검사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p=.03$ )(<표 4>).

<표 4> 각 집단별 아동의 또래괴롭힘 및 자아존중감의 사전·사후 검사 비교

	사전검사		사후검사		t
	M	SD	M	SD	
<b>또래괴롭힘(N=18)</b>					
실험 집단 I	2.57	.68	2.12	.64	2.43*
실험 집단 II	2.36	.18	2.21	.32	1.23
통제 집단	2.38	.51	2.14	.80	.96
<b>자아존중감(N=18)</b>					
실험 집단 I	2.73	.73	3.20	.47	-2.91*
실험 집단 II	2.60	.38	2.80	.25	-1.23
통제 집단	2.73	.16	2.80	.33	-.79

\* $p=.06$  \* $p=.03$

주: 각 집단별 사례수는 6명임.

한편, 본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살펴보기 위해 실험집단 I을 대상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추후검사서 측정된 자아존중감( $M=2.83$ ,  $SD=.75$ )이 사후검사의 경우( $M=3.20$ ,  $SD=.47$ )와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추후검사의 결과는 사전검사의 결과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는 발견할 수 없었다.

## 2) 어머니 양육행동의 변화

각 집단별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실험집단 I에서만 아동보고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 $p=.01$ ). 즉,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 모두에 참여한 집단의 경우에만, 아동은 어머니의 과보호적 행동이 프로그램 참가 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표 5>). 강압적 양육행동의 경우도 실험집단 I의 경우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감소되었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6>).

<표 5> 집단별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의 사전·사후 검사 비교

	사전검사		사후검사		t
	M	SD	M	SD	
<b>아동 보고(N=18)</b>					
실험 집단 I	2.13	.47	1.73	.47	3.87*
실험 집단 II	2.13	.24	1.97	.23	1.27
통제 집단	2.07	.37	2.27	.35	-1.23
<b>어머니 보고(N=18)</b>					
실험 집단 I	1.83	.63	1.50	.17	1.63
실험 집단 II	2.00	.51	2.03	.35	-.31
통제 집단	2.37	.53	2.30	.56	.35

\* $p=.01$

주: 각 집단별 사례수는 6명임.

<표 6> 집단별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행동의 사전·사후 검사 비교

	사전검사		사후검사		t
	M	SD	M	SD	
<b>아동 보고(N=18)</b>					
실험 집단 I	2.25	.50	1.92	.30	1.20
실험 집단 II	2.50	.32	2.54	.40	-.22
통제 집단	2.58	.38	2.38	.26	1.05
<b>어머니 보고(N=18)</b>					
실험 집단 I	2.27	.24	2.07	.37	1.00
실험 집단 II	2.53	.16	2.47	.24	.60
통제 집단	2.63	.43	2.77	.53	-1.58

$p>.05$

주: 각 집단별 사례수는 6명임.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살펴보기 위해 실험집단 I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적 행동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추후검사에서 측정된 점수는 1.80(SD=.47)으로서 사후검사의 결과(M=1.73, SD=.47)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과보호적 행동이 감소된 것으로 아동에 의해 지각되었던 어머니 행동은 프로그램을 마친 후 2개월경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의 문제가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또래관계 특성 및 인성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들에 근거하여, 피해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피해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피해아 부모들의 특징적 양육행동으로 잘 알려진 통제적 성향과 이러한 양육행동과 관련되어 피해아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의존적 성향을 고려하였다. 이를 기초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아의 어머니들에게 올바른 자녀양육방법을 가르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의 행동에 변화를 주어 또래괴롭힘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인격체로서 존중할 수 있는 올바른 아동관을 정립시키고 민주적 양육행동으로의 변화를 목표로 하여, 특히 자녀를 자립적으로 양육하는 실제적 방법들을 강조하였다.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매주 2시간씩 총 10주에 걸쳐 계속되는 단계적 프로그램으로서 6~8명의 소집단 규모로 운영된다.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은 피해아들에게 올바른 대인관계 기술을 가르쳐 또래와의 상호작용 방법을 변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적응력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이 자신의 또래관계를 있

는 그대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습득된 사회적 기술을 통해 원만한 또래관계로의 변화를 목표로 하였다. 특히 피해아의 특성상 의존적일 뿐만 아니라 자기주장력이 부족하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다는 점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피해아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며 자신을 적절히 주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 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본 프로그램은 매주 1시간 40분씩 총 10주에 걸쳐 이루어지는 단계적 프로그램으로 6~8명의 피해아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개발된 중재 프로그램은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 모두에 참여하는 집단(실험 집단 I),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만 참여하는 집단(실험 집단 II),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통제 집단) 등의 세 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6쌍의 피해아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각 집단별로 아동의 또래괴롭힘 및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프로그램 실시전과 실시 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통해 비교하였다. 그 결과, 또래괴롭힘은 실험 집단 I에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실험 집단 I에서만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아동에 의해 측정된 경우 실험 집단 I에서만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실험 집단 I의 경우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행동도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실험 집단 I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발견된 점을 통해, 또래괴롭힘의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행동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많은 기존 연구들을 통해 잘 알려진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동의 행동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연구대상자가 너무 적은 점에 기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실험 집단 I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살펴보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친 다음 두 달 후에 추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사후 검사 결과와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마친 후 2개월이라는 기간은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보고하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으로서, 프로그램의 보다 분명한 지속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다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의 추후 검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을 주제로 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좀더 확장하는 의미에서 피해아와 그들의 어머니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또래 괴롭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또래 괴롭

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연구가 부진한 현 상황에서,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피해아와 그들의 부모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시도한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에 근거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중재적 프로그램을 주제로 한 초기 연구임과 동시에 연구의 규모를 감안하여 중재적 접근의 대상을 피해아와 그들의 어머니들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기존 국외 연구의 일례(Olweus, 1991)에서 볼 수 있듯이, 또래괴롭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아동뿐만 아니라 교사와 또래를 포함하여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중재 프로그램의 실시와 관련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피해아와 그들의 어머니가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시도하는데 적지 않은 제한이 있었다. 총 677명의 아동들 가운데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18명의 아동들의 부모들만이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하였으며 그 가운데 실험 집단에 속한 경우는 12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한다면, 후속 연구에서는 기초조사시 대규모의 표집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를 충분히 확보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정하는 작업은 그 어떤 과정보다도 많은 노력과 고충을 요하는 부분이었다.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진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특히 그간 몇 년에 걸쳐 또래 괴롭힘을 주제로 하여 수행되어온 연구결과들



의 보다 실질적인 산물이 되리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를 통해 또래 괴롭힘의 피해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보다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보다 전국적인 규모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하나의 초석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중재 프로그램의 기본틀은 피해

아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술과 자녀 양육행동에서 각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해아와 그들의 부모에게도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자신은 물론 그들의 부모와 교사에게 피해아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들이 각각 자녀양육 및 아동지도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 구본용(1998). 청소년 집단따돌림의 원인과 지도방안.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청소년 대학의 광장.
- 권명희(2000). 자기주장훈련이 위축아동의 위축행동 및 또래 수용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 김소연(1999). 초등학생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경(1997). 인기, 무시, 배척 집단의 사회기술 및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1998). 인성특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12), 1-9.
- 도현심(1999).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또래경험과 초기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33-49.
- 도현심(2000). 초기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 : 부모에 대한 애착, 또래거부 및 우정관계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1(1), 307-322.
- 도현심, 유명희(1996). 부모교육 프로그램 모형의 개발 및 실시. *아동학회지*, 17(1), 39-56.
- 도현심, 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3.
- 박경현(1999). 중학생의 왕따 실태와 수호천사 프로그램의 왕따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 서울특별시 청소년종합상담실(1998). 따돌림을 당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서울특별시 청소년 종합상담실 개원 1주년 심포지엄 자료집.
- 유안진, 김연진(1993). *유아를 위한 부모교육*. 서울 : 동문사.
- 유재환(2000). 사회적 기술훈련 프로그램이 교립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연, 김경희(1989). *부모교육*. 서울 : 양서원.
- 정문자(198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 유아교육 심포지움 I*. 한국어린이교육협회.
- 조선일보. 1999년 1월 5일자 25면.
- 청소년폭력에방재단(1999). 집단따돌림("왕따")의 실태와 대처방안.
- 최미경, 도현심(2000).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기 종단

- 적 연구 : 애착 및 우정관계의 역할. *아동학회지*, 31(3), 85-105.
- 최미경, 도현심(2001). 또래괴롭힘 피해아의 경험에 관한 심층면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31-46.
- 홍기형, 박혜정, 권경안, 권기욱(1986). 부모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 취약적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Alsaker, F.(1993, March). *Bully/victim problems in day-care centers, measurement issues and associations with children's psychosocial health*.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New Orleans.
- Boulton, J., & Underwood, K.(1992).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 Bukowski, W., Newcomb, A., & Hartup, W.(1996). *The company they keep :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h, H., & Falbo, T.(1999). Social competence, maternal attentiveness, and overprotectiveness : Only children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 149-162.
- Egan, S. K., & Perry, D. G.(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2), 299-309.
- Finnegan, R., Hodges, E., & Perry, D.(1996). Pre-occupied and avoidant coping during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7, 1318-1328.
- Glenn, H., & Nelson, J.(1989). *Raising self-reliant children in a self-indulgent world*. Rocklin, CA : Prima Publishing & Communications.
- Hamner, T., & Turner, P.(1985). *Parenting in contemporary society*. NY : Prentice-Hall.
- Hodges, E. V. E., Malone, M. J., & Perry, D. G. (1997). Individual risk and social risk as interacting determinants of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032-1039.
- Hodges, E. V. E., & Perry, D. G.(1999). Personal and interpersonal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victimization by pe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4), 677-685.
- Juvonen, J., & Graham, S.(2001). *Peer harassment in school : The plight of the vulnerable and victimized*.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Kochenderfer, B., & Ladd, G.(1996). Peer victimization : Manifestations and relations to school adjustment in kindergarte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4, 267-283.
- Magnusson, D., Stattin, H., & Duner, A.(1983). Aggression and criminality in a longitudinal perspective. In K. T. Van Dusen & S. A. Mednick(Eds.), *Prospective studies of crime and delinquency*. Boston : Kluwer-Nijhoff.
- Olweus, D.(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C : Hemisphere.
- Olweus, D.(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children :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Pepler and K.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Hillsdale, NJ : Lawrence.
- Olweus, D.(1992). Victimization by peers :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K. H. Rubin & J. B. Asendor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pp. 315-341). Hillsdale, NJ : Erlbaum.
- Olweus, D.(1993). Bullies on the playground : The role of victimization. In C. H. Hart(Ed.), *Children on playgrounds*(pp. 85-128). Alba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Patterson, G. R., & Bank, L.(1989). Some amplifying mechanisms for pathologic processes in families. In M. R. Gunnar & E. Thelen(Eds.), *Systems and development : The Minnesota symposium of child psychology*(Vol. 22). Hillsdale, NJ : Erlbaum.
- Pepler, D., King, G., & Byrd, W.(1991). A social-

- cognitively based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for aggressive children. In D. J. Pepler and K. H.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pp. 361-288). Hillsdale, NJ : Erlbaum.
- Perry, D. G., Hodges, E. V. E., & Egan, S. K.(2001). Determinants of Chronic Victimization by Peers : A review and a New Model of Family Influence. In J. Juvonen & S. Graham(Eds.), *Peer harassment in school : The plight of the vulnerable and victimized*(pp. 73-104).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Perry, D., Kusel, S., & Perry, L.(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Perry, D. G., Williard, J. C., & Perry, L. C.(1990). Peers' perceptions of the consequences that victimized children provide aggressors. *Child Development*, 61, 1310-1325.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bin, K., & Asendorf, J.(Eds.)(1992).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pp. 315-341). Hillsdale, NJ : Erlbaum.
- Schneider, B., Rubin, K., & Ledingham, J.(1985). *Children's peer relations : Issues i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New York : Springer-Verlag.
- Schwartz, D.,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E.(1997). The early socialization of aggressive victims of bullying. *Child Development*, 68(4), 665-675.
- Wiggins, J., & Winder, C.(1961). The Peer Nomination Inventory : An empirically derived sociometric measure of adjustment in preadolescent boys. *Psychological Reports*, 9, 643-677.